

JIPYONG
DUROO

PRO
BONO

ANNUAL
REPORT

JIPYONG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지평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EL 02.6200.1600 FAX 02.6200.0800
www.jipyong.com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두루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9층
TEL 02.6200.1853 FAX 02.6200.0811
www.duroo.org

2016
지평·두루
공익활동
보고서

MESSAGE

인사말

02

MISSION & INDICATOR

공익활동
미션&지표

04

NEWS

공익활동
10대 뉴스

06

LEGAL

법률분야
공익활동

장애 인권활동
아동·청소년·교육활동
사회적경제·기업 공익활동
국제 인권활동
기타 공익활동
공익법교육·중개 및
NGO 네트워크 협력

08

OTHER ACTIVITIES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사회공헌활동
기부활동
공익교육활동

18

INTERVIEW

공익활동
이야기

지평 '센추리클럽'에게서 공익활동 비결을 듣다
협력단체 '애란원'에서 지평과 두루가 나아갈 방향을 듣다
'사회봉사팀' 서진하 대리의 공익활동을 듣다

24

DONATION

두루
기부 이야기

32

ACCOMPLISHMENT & EVALUATION

공익활동
평가지표

34

2016 JIPYONG DUROO PRO BONO REPORT

MESSAGE

인사말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룰 수 있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두루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꿈은 꾸는 데만 머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달콤하게 꿈만 꾸었다면 그럴 일은 없었겠지요.

하지만 눈물을 흘려도 좋았습니다.

힘들고 아파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스스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는 감동에 흘리는

눈물도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모든 문명의 기록은 또한 야만의 기록'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세상의 야만에 맞서야 한다는 생각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만의 기록을 조금이라도 가릴, 공존의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꾸었던 꿈만이 아니라, 그 꿈을 실현하려고 애썼던 행적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고스란히 공존이라는 이름으로 남기려 합니다.

그 또한 우리의 2016년으로 기록될 하나의 역사일 테니까요.

우리의 꿈을 읽어 주십시오.

우리의 공존을 읽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록과 우리의 역사를 읽어 주십시오.

변함없는 응원이 우리의 꿈을 더욱 키워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 날아오르려는 우리의 몸짓에

더욱 큰 힘을 불어 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룰 수 있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두루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김지형

MISSION & INDICATOR

공익활동 미션 & 지표

"나눔, 배려, 참여"

국내 법무법인 사회공익활동의 시작은 지평이었습니다.

"세상을 두루 살피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사단법인 두루를 통해 공익활동의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2016년 지평의 공익활동 시간은 변호사 1인당 7.62시간이 늘어 총 공익활동 5,000시간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작년의 4,229시간보다 1,203시간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125명의 변호사 중 119명의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참여하여 95% 이상의 변호사가 공익 활동에 참여하였고, 이 중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의 비율도 71.20%에 이릅니다.

2016년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직원을 포함한 전체구성원의 사회봉사활동 시간도 크게 늘어 총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2,000시간을 훌쩍 넘었습니다.

총 공익활동 시간

5,433.06^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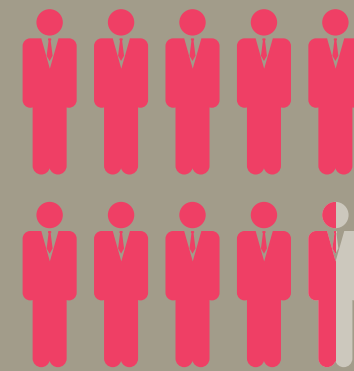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5,433.06시간 : 125명)

43.46^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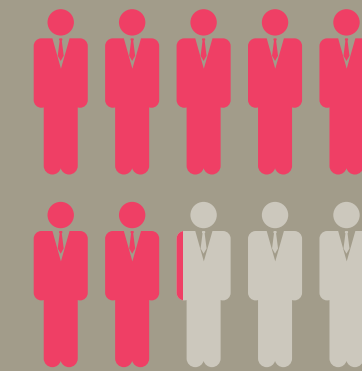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비율
(119명/125명)

95.20%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비율
(89명/125명)

71.20%



소속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 비율



소속변호사 (63명/67명)
94.03%

구성원변호사 (56명/58명)

9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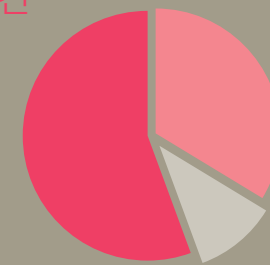
공익활동 수치

666 건

공익자문 의견
368 건

공익상담
223 건

공익소송 대리
75 건



총 사회봉사활동 시간(직원 포함)



1인당
6.49^h



전체구성원(335명)
2172.5^h

NEWS

공익활동
10대 뉴스



01

입양아동 학대사건 관련 소송 및 제도개선 활동 수행

지평과 두루는 대구 · 포천 입양아동 학대 ·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형사사건과 파양사건에서 피해아동을 대리하고 있는 지평과 두루는 입양 절차에서 발생하는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이상 입양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02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동네 슈퍼, 식당, 미용실, 카페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입구의 턱과 계단에 가로막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시설 접근권에 관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연구한 뒤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03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적극 제기

지평과 두루는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교통약자 시의 이동권 소송 외에도 영화관람시 시 ·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화면해설, 자막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소송과 장애인 수험생을 대리하여 법학적성시험 응시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임시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4

미혼한부모 가족을 위한 소송, 법률자문 및 법률교육 진행

지평과 두루는 미혼한부모 가족 지원시설 애란원을 통해 의뢰받아 준강간사건, 가정폭력사건에서 피해여성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양육비 청구, 금융사기, 이혼 등의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분기별로 법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5

루트임팩트 · 동그라미재단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조직에 법률자문 제공

지평과 두루는 2016년 루트임팩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성수동 소재의 소셜벤처에게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착한 기업을 키우고자 노력하는 동그라미재단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조직에게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6

외국인 미혼모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대리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한 이슬람 국가 출신의 한 여성은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놓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 난민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지평과 두루 역시 난민의 사회 정착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07

성폭력피해자 무고소송 승소

지평과 두루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성의전화의 요청으로 성폭력피해자의 무고사건 변호를 맡았습니다. 2015년 2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2016년 2월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판결, 2016년 8월 상고심에서도 검찰 상고 기각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08

기탁금 관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

지평과 두루는 7월 기탁금 등 공직선거법 상 4개 조항의 위헌성을 논증하는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9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1인당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조항이 소수정당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금액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09

국제인권 분야 공익변호사 1명 채용

두루는 국제인권 영역을 담당할 변호사로 최초로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이로써 두루는 각 영역별로 1명씩 총 4명의 공익 전업변호사가 상근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10

공익런치 · 공익디너 진행

지평과 두루는 점심,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공익활동을 하고 참석자가 개별적으로 식사값 명목의 금액을 기부하는 공익런치 · 공익디너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회 천연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방향제 만들기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모금된 금액은 모두 공익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인 세상을 꿈꿉니다.

탈시설을
권리로서
보장하라!

장애인차별
실효성 확보
위한 정책
시행하라

활동보조서비스
장애등급심사 폐지하고,
장애등급과 연령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하라!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이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LEGAL

법률분야
공익활동

장애 인권활동
아동·청소년·교육활동
사회적경제·기업 공익활동
국제 인권활동
기타 공익활동
공익법 교육·증개 및 NGO 네트워크 협력

01

장애 인권 활동

주요 활동

- 법학적성시험 응시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임시구제청구 수행
-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수행
- 인강재단 관련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 이사해임명령취소소송 수행
- 중증장애여성을 대리하여 병원의 의료차별 장애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 한국 장애인개발원 <문화·예술에서의 장애차별 예방 매뉴얼> 연구 자문
-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조문집 <우리 모두 소중한> 개정판 감수
- 장애인활동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위한 입법운동
- 장애인법총서 중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도입과 과제>, <정신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법원의 구제조치'> 집필
- 마음건강복지재단 전주시 민관합동 지도감독 참여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지평과 두루는 2016년 4월부터 6개월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주로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위 연구용역은 바닥면적 및 건축시기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등의 내용과 문제점, 실태를 살펴보고, 해의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소송 제기

지평과 두루는 2월 시·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극장운영업체를 상대로 화면해설, 자막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영화상영관을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극장은 이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기기를 개발하여 상용 중이고, 국내 영화제에서도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소송과 법률자문 및 법·제도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

지평과 두루는 7월부터 장애인단체들과 장애인활동보조제도 개선 TF를 결성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평과 두루는 여러 장애인재단 산하시설의 인권침해에 법률지원을 한 경험을 기초로 9월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증언대회'에 참여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 대리

지평과 두루는 미혼모자시설을 통해 의뢰받아 파양사건과 함께 아동학대형사사건에서 피해아동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입양허가결정이 나기 전에 입양을 전제로 위탁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지평과 두루는 한 부모가족이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이상 입양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대리
- 수용자 자녀 소년보호사건 대리
- 아동학대형사사건 피해아동 대리
- 학대피해아동 파양사건 대리
- 준강간사건 피해청소년 대리
- 성폭력·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피해자 대리
- 입양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위한 입법운동
- 심대 성매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규제 법령 개정 위한 입법운동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청소년' 규정 헌법소송 및 개정 위한 입법운동
- 아동인권포럼, 아동복지법 아동보호전달체계 관련 개정 위한 입법운동
- 수용자 자녀와 가족 지원시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법률자문
-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Partnership ON)' 법률자문, 법률교육, 법률프로젝트 지원
-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파견 및 법률자문
- 심대여성인권센터 법률자문
-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제도·정책 인권모니터링 자문
- 미혼한부모 가족지원시설 애란원 법률자문 및 심대미혼모 법률교육
-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 소년선도심사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활동

02

아동·청소년·교육활동

수용자 자녀를 위한 법률지원

지평과 두루는 수용자인 보호자의 친권·후견권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소년보호사건을 대리하는 등 수용자 자녀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세움과 함께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부모 체포 시 가이드라인, 아동의 수용자 부모에 대한 면접권, 장기수용자 부모 관련 후견제도, 수용자 자녀에 대한 요보호아동체계 등 수용자 자녀와 가족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의료업무매뉴얼 감수

지평과 두루는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의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루는 매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진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알아야 할 법적 내용'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여성가족부와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가 집필한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을 위한 의료업무매뉴얼>의 법률 부분을 맡아 작성하고 감수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들 앞에 닥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임을 인식하고, 그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과 법률자문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두루는 10월 사단법인 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과 법률자문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나는조합은 사회 소외계층의 지속가능한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두루는 지평과 협력하여 신나는조합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게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루트임팩트와 협력의 폭 확대

지평과 두루는 2016년 루트임팩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성수동 소재의 소셜벤처에게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법률교육인 '로큰롤'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자문은 트리플래닛, HGI, 루트임팩트, 닥터키친, FLRY, 마리몬드, 위누, 프라미슈, 두손컴퍼니, 베네핏 매거진 등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법률자문과 법률교육을 통해 성수동 소재의 기업들과 점차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소셜벤처들의 법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그들의 혁신사업이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평과 두루는 최선을 다하여 도울 것입니다.



동그라미재단 로컬챌린지 프로젝트 참여기업 법률자문

지평과 두루는 올해부터 지역사회에 착한 기업을 키우고자 노력하는 동그라미재단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평과 두루는 동그라미재단의 로컬챌린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기업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평과 두루는 지역사회를 혁신하고자 하는 많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입법지원, 제도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3

사회적경제·기업 공익활동

주요 활동

- 사단법인 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과 법률자문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 루트임팩트와 협력하여 성수동 소재 소셜벤처 법률자문 (자문대상기업 : 트리플래닛, HGI, 루트임팩트, 닥터키친, FLRY, 마리몬드, 위누, 프라미슈, 두손컴퍼니, 베네핏 매거진 등)
- SK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 참여 기업 법률자문(자문대상기업 : 맑은손공동체협동조합, 파머스페이스, 세진플러스 등)
- 동그라미재단 로컬챌린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 법률자문(자문대상기업 : 영주시 다문화희망공동체 등)
-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협력 기업 법률자문(자문대상기업 : 다누리맘 등)
- SK SUPEX협의회 사회공헌사업 법률자문
- 루트임팩트와 협력하여 성수동 소재 소셜벤처 대상 법률교육 '로큰롤' 진행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 제도개선연구회 참여
-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법률자문
- 아이쿱 협동조합지원센터 법률자문
-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법률자문
- 휠체어전동킥보드 개발 소셜벤처 토도웍스 법률자문
-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수탁자 사단법인 인천마을넷 법률자문
- 우리나라 e착한학생복 협동조합 출자금반환소송 수행
- 파머스페이스 신주발행무효소송 수행

04

국제 인권 활동

주요 활동

- 몽골 유학생 체류자격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소송 대리
- 파키스탄 기독교도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대리
-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소송 대리
- 미혼모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대리
- IVECA(International Virtual Elementary / Secondary Classroom Activities) 한국 내 비영리법인 설립 및 회계 등 운영업무 법률자문
- 이주민센터 친구 법률자문 및 지원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법률자문
- 미얀마 한인회 법률자문
- 외국인 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관련 법률자문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조교의 지속적 괴롭힘 관련 법률자문
- 국제인권소위원회 공익런칭 '아기 손수건 만들기' 행사
- 인도네시아 아시아 프로보노 포럼 및 컨퍼런스 참여
- 시카고 성폭력피해 구제기관 연수
- 농·축산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지구인의 정류장 지원
- 법무부 투자 비즈니스 가이드 핸드북(이러닝) 제작 참여 및 지원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 대리

지평과 두루는 금전적 지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 법률지원에도 나서면서 '지구인의 정류장'에 대한 지원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평과 두루는 트래क्टर를 몰다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앞으로도 지구인의 정류장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미혼모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수행

한국에 온 뒤 아이를 출산한 외국인 A씨는 이슬람교를 믿는 가족들과 고국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A씨의 꿈을 지평과 두루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민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지평과 두루 역시 난민의 사회 정착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지평과 두루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해외 NGO,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평 해외사무소를 통해 법률가의 해외봉사활동 및 공익법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센터 친구 법률자문 및 지원

지평과 두루는 지속적으로 이주민센터 친구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친구는 2011년 12월에 설립되어 이주민들의 인권,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두루는 친구에서 발간한 상담사례집을 감수하고, 정기적으로 친구에서 이주민들과 상담을 하면서 친구와 연대 활동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주요 활동

- 선거운동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 기탁금 관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 선거운동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 선거기간 중 집회·모임 관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 환경 / 송전선 설비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헌법소원
- 여성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무고소송
- 여성 / 스토킹살인사건 피해자 대리
- 노동 /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 법률자문
- 노동 / 서울여성노동자회 법률자문
- 통일 / 남북한 국토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 통일 / 통일특구법 검토
- 통일 / 남북협력지구 법률자문
- 인권 전반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자문 및 인권침해 정지상담
- 인권 전반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생활지원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
- 인권 전반 /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 시민단체 / 나눔문화 임대차 관련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아쇼카 한국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열매나눔인터내셔널 법률자문
- 시민단체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시민단체 / 기부금 관련 재단법인 우체국공익재단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아름다운재단 법률자문
- 기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05

기타 공익 활동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대리

지평과 두루는 중곡동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경찰이 이 사건 직전 범행이 발생하였을 때 범행현장 근처에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있었는지 보호관찰소에 조회 해 보지 않은 점,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들어 국가의 법령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탁금 관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헌법불합치 결정

지평과 두루는 7월 기탁금 등 공직선거법 상 4개 조항의 위헌성을 논증하는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3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1인당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소수정당과 신생정당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금액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선거의 자유, 여성, 노동, 환경, 통일 등 다양한 공익법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6

공익법 교육·중개 및 NGO 네트워크 협력

공익법활동 중개시스템 구축

지평과 두루는 공익사건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공익법영역에서의 변호사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익사건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별 변호사와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공익·인권단체 사이에 공익법활동을 중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두루, 국제인권 분야 공익변호사 채용
- 공익변호사모임 주최 '공익변호사 한마당' 참여 및 지원
- 로펌 공익전담변호사 정기회의 참여
- 공익변호사모임 회의 참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법캠프 지원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연' 캠프 지원



로펌공익네트워크 활동

로펌공익네트워크는 11월 7일 출범을 선언하고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광장, 김앤장, 동인, 로고스, 바른, 세종, 원, 율촌, 지평, 태평양, 화우 11개 로펌이 공익활동 활성화와 로펌의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 모색을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두루는 '공익상근변호사의 관점에서 본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NGO가 쟁점화하는 의제들을 공익활동을 원하는 개별 변호사에게 연결
- 공익법영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익법활동 매뉴얼 제공 등 지속적으로 지원



지역활동 공익변호사 네트워크 활동

두루는 청주, 광주, 부산, 제주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를 찾아가 활동 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역 공익변호사로서의 어려운 점과 장·단점, 법률가·활동가·지역 코디네이터로서의 정체성, 공익법률활동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두루는 지역활동 공익변호사와 상시적으로 교류하여 지평과 두루의 활동이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변호사 프로보노 활동 중개

지평과 두루는 강민지 외국(미국)변호사, 류다솔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의 프로보노 활동을 중개하였습니다. 미국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을 치르고 난 뒤, 의무적으로 50시간 이상의 프로보노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강민지 외국변호사는 두루에서 근무하면서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리서치 등 다양한 해외 법제 리서치를 수행하였습니다. 류다솔 변호사는 공익·인권 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법연구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두루의 난민소송 등 여러 소송 업무를 도왔습니다.



두루 법학전문대학원 하계·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두루는 작년에 이어 여름 3주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익인권 분야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1~2학년 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무수습은 공익소송 기록 검토, 서면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공익단체 등 NGO와의 협력 및 교류, 그 외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중곡동 살인사건 소송기록 검토 및 서면 작성을 비롯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신나는조합 등에 파견되어 단체의 활동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두루는 공익 변호사의 진로를 꿈꾸는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공익 변호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익변호사 양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두루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후기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답을 찾았습니다”

때때로 로스쿨에 다닌다고 하면, “너는 나중에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니?”, “무엇을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니?”라는 질문을 자주 받곤 했습니다. 저는 어렵듯이 공익 전업 변호사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시간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제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두루에서 3주간 실무수습을 한 것은 제가 어떤 변호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난생처음 두꺼운 기록을 받아 들고 손가락에 골무를 끼워가며 기록을 보고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기록을 많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또 기록의 양이 많기는 했지만 그것을 읽어가며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서면 속에 녹여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3주간 두루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다양한 강연과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 즐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3주간의 실무수습을 마치면서 정말 행복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방향성을 가진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된다면 이러한 행복을 느끼면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두루에서의 3주는 제가 공익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권석현 학생



“첫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원하던 학교에 합격했을 때 다들 각자의 마음 속에 그리는 자신의 멋진 미래상이 확실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학업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지?’, ‘내가 되고자 했던 법률가가 어떤 모습이지?’, ‘내가 정말 변호사가 되길 원한다면, 왜 이렇게 학업을 수행하는 것이 괴로운가?’ 하는 질문들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모든 직업에 있는 저를 상상해봤지만 로스쿨 입학 전 그렸던 모습과 같이, 멋있고 반짝이는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중한 학업의 무게를 지고, 이에 지친 동기들을 보고 있다 보면 내가 그토록 간절했던 생활이 과연 이런 생활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순간도 간혹 있었습니다.

두루에서 보낸 시간은 제가 가졌던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스스로 대답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인턴 과정은 타 로펌 인턴과정에 비해 변호사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항상 인턴실을 찾아 변호사님들께서 진행 중이신 사건들과 사건 수행 중 겪었던 감정들을 공유해주셨고,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도 성의 있게 답변해주셨습니다. 어떤 사건을 대하든 진심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과 변호 중 겪으셨던 경험담을 듣고 있다 보면 내가 가진 법적 지식이 진심으로 타인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에 두근거렸고, 이러한 생각이 반복될 수록 학업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초심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박규희 학생





함께 '땀'을 흘리며 이웃과 호흡하고자 합니다.

OTHER ACTIVITIES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사회공헌활동
기부활동
공익교육활동



01 농촌봉사활동

지평과 두루는 2012년부터 5년째 농촌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1박 2일 동안 제천시 덕산면으로 손모내기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으며, 같은 곳에서 9월 25일에는 벼 베기를 진행하였습니다. 10월 8일에는 1박 2일 동안 제천시 덕산면에서 오미자 수확을 하였습니다.



02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지평과 두루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서대문구 연희동에 소재한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제빵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5시간 동안 계량, 반죽, 빵 굽기, 포장 공정 등에 참여하여 직접 구운 따뜻한 빵을 서대문구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03 무료급식 봉사활동

지평과 두루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분들을 대상으로 저녁식사 배식 및 마무리 정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숙인분들의 환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04 유기동물 보호활동

지평과 두루는 3월 26일 일산에 위치한 유기동물보호소 '생명공감'에서 유기동물 보호활동으로 안락사 위기에 있는 중대형견들의 견사 청소를 하였습니다.



05 산 정화활동

지평과 두루는 6월 25일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산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매해 산 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변호사와 임직원, 가족 총 25명이 참여하여 돼지풀 제거 및 등산로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06 '겨레얼학교' 가을소풍

지평과 두루는 10월 15일 부천중앙공원에서 '지평과 함께 하는 겨레얼학교 가을소풍'을 진행하였습니다. 겨레얼학교 학생, 교사, 지평 임직원 총 64명은 농구, 배드민턴, 줄넘기, 캐치볼,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겨레얼학교는 저소득층 탈북청소년들과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 2세 아동들이 정착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도권교육에 원만히 진입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과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7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참여

지평과 두루 구성원 30여 명은 11월 26일 '2016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지평은 1가구에 200장씩 10가구, 총 2,000장의 연탄을 전달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은 2004년 6월 남과 북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지평은 2005년부터 12년째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01

사회공헌 활동

지평은 두루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현장을 경험하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2

기부 활동

매칭그랜트 외 주요 기부

-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서제작 지원
-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지원
- 이음장애인자립센터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이음여행' 지원
- 한국장애인자립지원센터 후원주점 지원
- 한국여성성전화 주최 제10회 여성인권영화제 지원
- 미혼한부모 가족지원시설 '애란원' 지원
- 사북지역의 교육을 위한 협동조합 '천개의 숲' 지원
- 이화여자고등학교 장학금 지원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후원음악회 지원
- 농촌 지역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구인의 정류장' 지원
- 이주민센터 '친구' 지원
- 탈북자자녀 대안학교 '겨레얼 학교' 지원
-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 지원
-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지원
- 제4회 동아시아와 유럽의 역사 NGO활동가 대회 지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법캠프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 : 연' 캠프 지원
-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도서제작 후원

지평과 두루는 2015년 '우리 모두 소중해' 도서의 제작을 지원하고 감사한 데 이어 올해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제작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설서는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가 제작하며, 2017년까지 2년에 걸쳐 제작됩니다. '우리 모두 소중해'가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그림으로 이루어졌다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해설서는 이보다 상세한 해설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와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지평과 두루가 발맞춰 가고자 합니다.



지평은 2010년부터 매칭그랜트(구성원이 공익단체에 후원하는 금액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1대 1로 매칭하여 후원하는 제도)를 통해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성전화 주최 제10회 여성인권영화제 후원

지평은 매년 한국여성성전화에서 주최하는 여성인권영화제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주년을 맞은 여성인권영화제는 10월 10일부터 일주일 간 충무로역에 위치한 대한극장에서 '피움'이라는 주제로 예년보다 큰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인권영화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이라는 분명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를 바꿔가는 피해 생존자들의 감동적인 삶의 목소리가 울리는 특별한 축제입니다. 지평과 두루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성찰하려 합니다.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공익강연

지평과 두루는 3월 10일 벤처기부(Venture Philanthropy) 회사인 C Program의 엄윤미 대표를 초청하여 소셜 섹터 현장사례를 주제로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엄윤미 대표는 여성기업가 네트워크의 공동 창립자 겸 운영진이며, 사단법인 루트임팩트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날 강연은 소셜 섹터의 다양한 플레이어에 대한 landscape, C Program의 다양한 공익사업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주노동의 현실 공익강연

지평과 두루는 12월 1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지구인의 정류장의 김이찬 대표를 초청하여 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국내 농축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2만 명에 달하는데,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은 하루 12시간 고된 노동을 하고 비좁은 비닐하우스에 몸을 누입니다. 한 달에 단 하루, 이를만을 쉬면서 받는 월급은 100만 원을 겨우 넘습니다. 얼마 안 되는 월급마저 떼이기도 하고, 여성 노동자들은 성추행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혹여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겨 추방될까 전전긍긍하며 고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날 이주노동자들과 부대끼며 지내는 김이찬 대표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극악한 현실을 담은 영상을 보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숨막히는 현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03

공익교육 활동

숲에 얽힌 이야기 공익강연

지평과 두루는 7월 5일 나무 심는 청년 CEO, 트리플레넷의 김형수 대표를 초청하여 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김형수 대표는 20대에 창업하여 6년간 트리플레넷을 운영하면서 나무 키우기 게임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시작으로, 스타 숲, 일본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소녀들을 기억하는 숲 등 전세계 12개국에 116개의 숲을 만들었고, 아동인권과 빈곤 해결에 앞장서 온 영화배우故 오드리 헵번의 자손들과 함께 크라우드 펀딩으로 전남 진도에 '세월호 기억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날 트리플레넷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숲에 얽힌 이야기 등을 들어보며, 환경 문제와 세계 빈곤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용자 자녀가 당당한 세상 공익강연

지평과 두루는 10월 19일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이경림 대표를 초청하여 수용자 자녀의 실태와 현황, 수용자 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수용자 자녀는 우리나라에서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부 차원의 수용자 자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의 체포단계에서부터 조사, 사전심리, 재판 및 선고, 수감, 출소, 사회 재통합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권리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논평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세움과 함께 수용자 자녀 인권 옹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INTERVIEW 01

공익활동 이야기

지평 '센추리클럽'에게서 공익활동 비결을 듣다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 정진 외국변호사, 여연심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사진 왼쪽부터)

진행 여연심 변호사

지평과 두루는 한 해 10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수행한 변호사를 '센추리클럽'으로 선정하여 공익활동 활성화에 더욱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지평에서 10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수행한 변호사는 총 10명으로 조용환, 임성택, 최정규, 여연심, 박성철, 민창욱, 구정모, 김희송, 이상현, 정진 변호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중 여섯 분을 모시고 지평과 두루의 공익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공익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공익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상현 로스쿨에 가기 전까지 법조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변호사법을 찾아보니 제1조에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라면 당연히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로스쿨에 진학한 것이 첫 계기라면 계기입니다. 이후 지평에 입사하게 되면서 선배들이 공익활동을 하는 모습에 자극을 받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진 저는 로스쿨에 가기 전부터, 로스쿨에 다니면서도 공익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변호사라면 모름지기 공익사건에 일정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여야 한다는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펌에 입사하기로 결정 하면서는 '로펌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헌법소원 사건에서 외국 입법례를 정리해서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공익사건에 많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해 가장 기억에 남는 공익활동은 무엇인가요?

구정모 공금증으로 시작하였던 '스토킹 살인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스톱킹으로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판기일 때마다 통곡을 하시고, 매번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1심에서 피고인이 종신형을 선고 받았지만 유가족들은 피고인의 사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형폐지론자였던 저로서는 사형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아직 풀지 못하였습니다.

정진 녹색당을 대리하여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했던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조항이 많기도 하고, 여러 나라의 입법례를 근거로 제시하여야 했기 때문에 리서치 과정에서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치 상황과도 연계가 많이 되어 있어서 흥미롭기도 하였습니다.

박성철 함께 진행한 사건인데, 공직선거법의 4개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였고, 7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두루와 공개변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조만간 선고기일이 잡힐 것 같은데, 적어도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9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는 정당은 후보자 1명마다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민창욱 조용한 변호사님이 하시던 '간접조작 재심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공익활동이라는 것이 조심스러워야 하고, 열정과 패기만으로 덤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조 변호사님께서 기록을 말 그대로 쥐 잡듯이 뒤져서 말도 안 되는 조작의 증거들을 찾아 내 서면에 쓰시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변호사로서 올라야 할 길이 100계단이 있다면 저는 이제 겨우 2-3 계단을 올랐을 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펌의 공익활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박성철 로펌의 공익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욕구와 관심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제안하고, 기획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공익사건의 매력입니다. 일반사건과 고객의 관계가 달리 형성되고, 같은 지향을 공유하면서 친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공익사건의 장점입니다.

여연심 보통 공익사건에 자원할 때, 안 해본 분야를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자원하게 됩니다. 자문파트의 변호사들은 소송을 경험해볼 일이 거의 없는데, 공익사건을 통해 소송을 해본다거나 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어렵다면 박성철 변호사처럼 능숙한 변호사와 함께 해도 되고요. 안 해본 업무 분야를 경험해보는 계기가 공익사건이 되면 어떨까요.

구정모 의외로 공익사건이 수익사건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밀양 송전탑 사건을 맡고 나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송전탑 전문 변호사가 된 느낌일까요? 실제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마을 분들은 물론이고, 절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로펌이 수익을 이유로 공익사건을 외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사건과 일반사건의 균형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구정모 공익사건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일을 해야 한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성철 꼭 공익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하면 포트폴리오를 원하는 방향으로 짤 수 있습니다. 변호사 2-3년 차 때까지는 너무 일이 많아서 수세적으로 생활하는데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과 흥미가 있는 일이 오히려 뒤로 밀리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업무 태세를 전환하여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자원하고 있는데, 관심 분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라면 모름지기 공익사건에 일정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여야 한다는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펌에 입사하기로 결정하면서는 '로펌 변호사로서 공익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헌법소원 사건에서 외국 입법례를 정리해서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공익 사건에 많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민창욱 연차가 올라가면서 사건과 고객에 대한 책임감이 커집니다. 올 해에는 '내가 지금 공익활동을 할 여건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공익활동은 결과도 무척 중요한데,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특화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법이면 헌법, 금융이면 금융, 공익사건도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특화된 분야에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공익활동을 할 때 지평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민창욱 아무래도 주변에서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지평과 두루에서 공익보고서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매 달 혹은 정기적으로 어떤 공익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누가 어떤 공익사건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면 더 자극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공익활동을 하는 분위기, 공익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진 제가 속한 회사파트의 변호사님들도 공익사건에 대한 관심은 많으시지만, 급박한 자문이 많다 보니 공익활동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회사파트 변호사님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개발하거나 다같이 개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을 두루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현 공익사건을 진행하면서는 두루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로펌에서 근무하다 보면 공익사건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접촉도 적어지는데, 두루의 변호사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건과 의뢰인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관심도 생기고, 실제로 사건에 참여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공익사건이 있나요?

정진 헌법소원에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헌법 공부를 가장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미국 변호사다 보니 한국에서는 미국 헌법을 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을 하면서 미국 헌법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외국 헌법을 꾸준히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변호사로서의 역량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철 내년에도 새로운 사건들을 기획해서 하려고 생각 중인데, 다양한 가족제도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있습니다. 또, 여연심 변호사와 영장실질심사 등 형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도 해볼 생각입니다.

민창욱 정책연구나 영역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법 체계를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영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평에는 김지형 대표님이 계시고, 해밀 연구소도 있으니 노사관계 분야에서 비정규직 관련 입법, 차별 관련 입법 연구를 많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INTERVIEW 02

공익활동 이야기

협력단체 '애란원'에서 지평과 두루가 나아갈 방향을 듣다

애란원
강영실 원장, 경미경 과장



애란한가족네트워크는 1960년 여성보호시설 '은혜의집'으로 출발하여 애란원 등 5개의 생활시설과 나·너·우 리한가족센터, 위기임신지원센터 등 2개의 지역사회 상 담지원센터, 나래대안학교를 네트워크로 갖춘 미혼모부 자 전문기관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2014년부터 지속적 으로 애란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면서 인연을 맺어왔습니 다. 애란원의 강영실 원장, 경미경 과장 두 분을 모시고 지평과 두루의 공익활동에 대한 애란원의 생각을 들어보 았습니다.

애란원이 2016년 지평과 두루와 협력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고,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경미경 현재 애란원에 머무르는 난민을 돕고 있는 일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아이 엄마가 한국에서 임신을 해서 본국에 돌아가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다 건강도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돼요. 처음에는 무기력하고 의존적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놀라요. 혼자서 모든 상황을 헤쳐 나가야 했다던 어려웠을 텐데, 지평과 두루에서 도와주셔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강영실 지평과 두루의 도움을 받으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인식, 안전망 내에 있다는 안도감으로 미혼모들이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애란원에 있던 한 아이 엄마는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힘없이 주저앉고 직장이나 아이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평과 두루의 도움으로 남자친구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나서는 잠도 잘 자고 스스로 행복해졌다고 말해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지평과 두루는 끝까지 간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 점이 저희뿐 아니라 아이 엄마들에게도 힘이 많이 돼요.

지평과 두루가 애란원에서 법률교육을 하는 것은 어땠나요?

경미경 예전에는 변호사님들이 대안학교로 와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직접 지평에 가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기관에 가볼 일이 없는 친구들이라 보니 방문했던 경험 자체가 특별했다고 해요. 교육 이외에도 1대 1 상담했던 경험, 변호사님들이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신 것, 학생들 눈높이에서 교육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 어요.

강영실 아무래도 교육 내용을 눈높이에 맞춰 더 쉽게 할 필요는 있어요. 사례를 직접 얘기해준 뒤에 어떤 신청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면 될지 얘기해주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이 엄마들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폭력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해서 자기 아이들에게 폭력을 대물림 하다가 양육권을 뺏겨버리기도 해요. 어떤 것이 학대이고 폭력인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지평과 두루에게 바라는 점이나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강영실 애란원에 있는 엄마들은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온 친구들이에요. 저는 애란원에 있는 아이 엄마들이 사회인식 개선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평, 두루와 계속해서 협력하면서 사례가 쌓이고, 그런 사례들이 알려지면 사회인식 개선을 하는데 보탬이 될 거예요. 지평과 두루에서 사례를 발표하는 보고회나 세미나를 열어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기관에도 알려져서 아이 엄마들의 권익보호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경미경 변호사는 한국에서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이니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게 된 과정,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 힘들었던 시기와 극복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 엄마들은 성공한 경험이 없다 보니 실패에 익숙해져서 쉽게 포기를 해버려요. 꿈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벽을 마주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소소한 일상을 보내면서 작은 칭찬을 듣는 것도 힘이 많이 될 거예요.





사회봉사팀에서 전담하고 있는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빵 만들기 봉사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소재한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이하 '빵만사')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으로 지평은 2011년부터 짝수 달 토요일마다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매회 10여 명의 지평 구성원들이 5시간 동안 계량, 반죽, 굽기, 포장 등 모든 공정에 직접 참여하여 빵을 만들고, 빵만사를 통해 완성된 빵을 서대문구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9월 1일 지평 공익의 날에는 특별 이벤트로 빵만사에서 당일 갓 만든 빵을 지평 식구들을 대상으로 판매하여 소정의 기부금을 받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일 행사를 위해 지평 구성원 10여 명이 새벽 6시에 일어나 빵만사를 찾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준비된 수량을 모두 판매하였고, 예상보다 많은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빵만사에 상당한 수익금을 기부할 수 있었고, 빵이 무척 맛있다는 평도 듣게 되어 무척 뿌듯했던 행사로 기억합니다.

입사 후 현재까지 본인이 참여했던 공익활동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봉사활동은 무엇인가요?

2005년부터 회사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연탄나눔 봉사활동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올해는 개포동 구릉마을에서 연탄을 날랐습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는 가구가 여전히 많은 것이 신기했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직접 200장씩의 연탄을 전달하는 것이라 육체적으로 힘든 봉사활동이었지만, 그래서인지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에 더욱 와 닿았습니다. 연탄을 받는 주민 분들이 나눠주셨던 차 한 모금이 그렇게 따뜻할 수 없었습니다. 연탄을 나르는 동안 평소 업무영역이 겹치지 않아서 보기 힘들었던 지평 구성원들의 얼굴도 볼 수 있어 무척 좋았습니다. 공익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다른 팀원 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것도 공익활동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진하 대리가 생각하는 '공익'이란?

업무와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공익위원회 활동을 통해 좀 더 쉽고 자연스럽게 공익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봉사활동에 동료들과 함께 참여하며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매 순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평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공익'은 일상과 동떨어져 있거나, 특별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즐거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평의 공익활동은 지평 공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공익위원회 내에는 사회봉사를 전담하여 기획하는 '사회봉사팀'이 있습니다. 서진하 대리는 이 사회봉사팀의 일원입니다. 지평 구성원들의 일상 속에 사회봉사가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서진하 대리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서진하 대리가 전담하고 있는 빵 만들기 봉사활동에 대한 지평 구성원들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INTERVIEW
03

공익활동 이야기

‘사회봉사팀’
서진하 대리의
공익활동을 듣다

법무법인 지평 회사비서팀
서진하 대리

DONATION

두루 기부 이야기

두루와 함께 걸어주세요.

두루 FUN-딩

후원 계좌 및 문의

신한은행

140-010-878456

(예금주 :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두루

02.6200.1853

바람이 불었다.
나는 비틀거렸고
함께 걸어주는 이가
그리웠다.

이정하, 바람 속을 걷는 법

지평과 두루는 다사다난했던 2016년에도 '함께 걷는 이'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학대 당한 아동,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난민신청자, 어디에도 손 내밀 곳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일상적인 차별과 싸우는 장애인들, 열악한 환경에서 뿌리를 내리려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과 함께 걸었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재소자 자녀의 복지와 권리를 생각하며, 좋은 뜻을 가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를 연구하였습니다.

지평이 설립한 두루에는 아동·청소년·교육, 장애, 사회적경제, 국제인권 각 영역별로 한 명씩 총 4명의 공익 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같이 걸어야 할 길은 참 길고 많습니다. 같이 걷는 이가 더 많아 지면 좋겠습니다. 두루 변호사들은 더 많은 곳에 달려가고 싶고,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2016년 두루를 후원해 주신 분

법무법인 지평 강기훈 강민선 강민제 강성국 강원일 강율리 강정은 고기승 고세훈
곽은비 구동균 권영환 김기택 김대식 김문희 김병선 김상준 김선국 김성수 김승현
김영문 김영수 김옥림 김용진 김우연 김윤희 김이태 김지형 김지홍 김진권 김진희
김태형 김만수 김학규 마상미 문영화 문정우 박근배 박상배 박성철 박수정 박영주
박정수 박종완 반기일 배기완 배성진 백종현 사봉관 서문용채 손계준 신승기 신은진
신자영 심희정 안상훈 양영태 엄미영 여연심 유정한 윤성후 윤영규 이강호 이공현
이광선 이병주 이상희 이소영 이승민 이승현 이은영 이주연 이준길 이태현 이해원
이행규 이해은 이홍재 이훈 임미경 임성택 임혜정 장성 장윤정 장풍 장항석 정미자
정원 정진 정철 최세훈 최승수 최승호 최정규 최정목 최진숙 하지인 한승혁 한철웅
황인영 (가나다 순)

두루 기부자 인터뷰

법무법인 지평 이승민 외국변호사

공익변호사의 급여를 후원하고 싶다는 이승민 외국(러시아)변호사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두루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2014년 지평공익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 두루 설립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두루 설립 준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두루에 기부를 하게 된 계기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하고, 정의롭고,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사회 부문에서 법률적으로 '공익'을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우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루의 가치와 색깔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두루에 기부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루 기부자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열정적인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두루에 모여 좋은 변화를 만들어 내길 희망합니다. 향후 두루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리나라 대형 로펌을 넘어설 수 있는 법률공익단체로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저도 꾸준히 후원하겠습니다.

ACCOMPLISHMENT & EVALUATION

공익활동 평가지표

1. 법률분야 공익활동

분야	평가지표	2016년	
A 구조	1.A.1 공익활동위원회 설치 여부	있음 명칭: 지평 공익위원회	
	1.A.2 공익활동 규정 제정 여부	있음	
	1.A.3 공익활동 프로그램 / 목표 설정 여부	있음	
	1.A.4 공익활동 전담변호사 고용 여부	있음 4:125 (변호사 100명 당 3.2명)	
	1.A.5 공익활동 코디네이터 고용 여부	있음	
	1.A.6 공익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제공 여부	있음 공익위원회 위원, 두루 상근변호사, 직원을 통한 공익활동 코디네이트 및 공익소송, 공익자문 등 행정업무 지원	
	1.A.7 공익활동 관련 교육 제공 여부	있음 연간교육시간: 16시간	
B 활동	1.B.1 총 공익활동 시간	5,433.06시간	
	1.B.2 근로시간 대비 공익활동 비율	2.84% (5,433.06시간 : 191,184.18시간)	
	1.B.3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43.46시간 (5,433.06시간 : 125명)	
	1.B.4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45.66시간 (5,433.06시간 : 119명)	
	1.B.5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95.20% (119명 / 125명)	
	1.B.6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71.20% (89명 / 125명)	
	1.B.7 소속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 비율 및 1인당 평균 시간	소속변호사 94.03% (63명 / 67명), 42.16시간 (2,825시간 : 67명) 구성원변호사 96.56% (56명 / 58명), 44.97시간 (2,608.06시간 : 58명)	
	1.B.8 공익활동 관련 예산	공익활동 지원비	22,280,308원
		공익활동 교육 지원비	4,079,475원
		외부공익단체 지원비	222,970,000원
	합계	249,329,783원	

분야	평가지표	2016년
B 활동	1.B.9 공익활동 수치	공익소송 대리: 75건 공익자문 의견: 368건 공익상담: 223건 도움받은 사람: 약 666명
	1.B.10 분야별 공익활동 현황	2016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1.B.11 공익활동 관련 사건의 배당 방식	① 공공기관, 협력NGO단체 등을 통한 공익소송 및 공익자문 요청, 분야별 소위원회 및 NGO 자문변호사 중심으로 NGO와 협력하여 인권·공익분야 이슈 발굴 ② 공익위원회 논의 및 승인 ③ 분야별 전문소위원회 소속 변호사에게 배당하거나 사건 관련 전문변호사 또는 내부 모집을 통한 지원자 배당
	1.B.12 공익활동 지원	2016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1.B.13 공익활동의 공익인권지향성	2016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C 평가·보상	1.C.1 공익활동이 평가·승진·보상에 반영되는지 여부	① 국내·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내지 전문가) 및 직원 연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의무화 ② 예비구성원변호사 및 직원 평가 시 공익활동 반영

2.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분야	평가지표	2016년
A 기부	2.A.1 기부 총액	222,970,000원
	2.A.2 로펌 구성원 1인당 기부 액수	655,582원 (335명)
	2.A.3 공익인권 관련 기부의 비중	95.60% (213,170,000원 : 222,970,000원)
B 사회봉사	2.A.4 기부 현황	2016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2.B.1 사회봉사활동 총 시간	2172.5시간
	2.B.2 로펌 구성원 1인당 사회봉사활동 시간	6.49시간 (335명)
	2.B.2 사회봉사활동 현황	2016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 본 지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에 따라 산출한 것입니다.

* 법무법인 지평 소속 국내 변호사 125명(지방사무소, 해외사무소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공익 전담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소속변호사)의 활동 시간은 제외하였습니다.

* 비법률분야 공익활동은 직원을 포함한 전체구성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JIPYONG
DUROO
PRO
BONO**



2016 지평 공익위원회

위원장	임성택	
위원	강정은 강혜련 김영수 김용진 김우연 김이태 김지형 김태형 김학규 류혜정 박용대	박호경 서준희 서진하 여연심 이상희 이은영 이주언 이 훈 최정규 최초록 황인영

2016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김지형	김용진	오세훈
		김우연	유정민
이사	강율리	김윤희	윤재민
	문영화	김태오	이공현
	박용대	김판수	이상희
	이혜영	박호경	이소영
	임성택	배기완	이승민
		배성진	이주언
감사	김영수	서문용채	이혜은
	임승혁	서진하	이 훈
		신중길	정미자
회원	강정은	심희정	최윤영
	강혜련	안지혁	최초록
	구나영	안현정	하지인
	구정모	양영태	한철웅
	김성수	여연심	황인영